

Original Research Article

The Most Similar Person to Doctor Marie Curie in Our Home is Hyeonhi Regina (Tcheonzamun 753rd-768th)

Sangdeog Augustin Kim^{1*}

¹(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 Nam-do, Republic of Korea (ROK)

***Corresponding Author:** Sangdeog Augustin Kim
(Present address) Jungni Middle School (85 Jungni-Dongno, Daejeon, Republic of Korea).

Article History

Received: 08.07.2023

Accepted: 11.08.2023

Published: 24.12.2024

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described in his book that Korean people originated from Tartar race. An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utilized for instructing ancient Chinese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s (Dallet, 1874). It is thoroughly believed that Chinese people created ‘Tcheonzamun’ (Han, 1583). Park *et al.*, (2021a; 2021b) sugge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of 16 Chinese characters, and they insi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well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and on Korean grammar. This work is to know the right author of Tcheonzamun between Chinese people and Korean people. The method for the translation of this poem (Tcheonzamun 753rd-768th)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The title of this work is ‘The most similar person to Doctor Marie Curie in our home is Hyeonhi Regina (Tcheonzamun 753rd-768th)’. The theme of the present work is as follows. 757-760 園(Won) 莽(Mang) 抽(Tchu) 條(Zo). My husband! Do you want that a lot of flowering plants (莽) live together in the garden (園)? The solution is simple. The flowering plant must expand (抽) its stem (條) into the air. With this style, many plants can live together. My husband! The growing season is same as well as the growing space. Certain plant can live in the spring and in the summer, while other plant can grow well in the fall and in the winter. You can see in the same place many different plants alternatively on the different season.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Keywords: This Work is to Know the Right Author of Tcheonzamun between Chinese People and Korean People.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described in his book that Korean people originated from Tartar race. An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utilized for instructing ancient Chinese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s (Dallet, 1874). It is thoroughly believed that Chinese people created ‘Tcheonzamun’ (Han, 1583). Park *et al.*, (2021a; 2021b) sugge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of 16 Chinese characters, and they insisted that Tcheonzamun poem is well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and on Korean grammar. This work is to know the right author of Tcheonzamun between Chinese people and Korean people.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The method for the translation of this poem (Tcheonzamun 753rd-768th)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The present method is same to that of Park *et al.*, (2021b). And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753rd-768th). There is another method. It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a). But the latter method was not utilized on the present work.

Copyright © 2024 The Autho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for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author and source are credited.

CITATION: Sangdeog Augustin Kim (2024). The Most Similar Person to Doctor Marie Curie in Our Home is Hyeonhi Regina (Tcheonzamun 753rd-768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6(6): 296-299.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This work is to translate the Tcheonzamun poem of (Tcheonzamun 753rd-768th). The title of this work is 'The most similar person to Doctor Marie Curie in our home is Hyeonhi Regina (Tcheonzamun 753rd-768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753-756 渠(Keo) 荷(Ha) 的(Zeog) 歷(Lyeog).

My husband! Do you want that the beautiful and nice-looking thing (的) is to be seen more clearly and distinctly (歷)? Only the lotus plant (荷) exists in the lake (渠). There must be nothing but the lotus plant. My wife Hyeonhi said to me Augustin (her husband). My husband! "The lotus plant can live only in the water. And other plants will die in the water. This is the reason why the lotus plant lives solitarily in the lake."

This is the Korean grammar style.

757-760 園(Won) 莽(Mang) 抽(Tchu) 條(Zo).

My husband! Do you want that a lot of flowering plants (莽) live together in the garden (園)? The solution is simple. The flowering plant must expand (抽) its stem (條) into the air. With this style, many plants can live together. My husband! The growing season is same as well as the growing space. Certain plant can live in the spring and in the summer, while other plant can grow well in the fall and in the winter. You can see in the same place many different plants alternatively on the different season.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761-764 枇(Bi) 杷(Pa) 晚(Man) 翠(Tchwi).

My husband! Do you want to see the green plant (翠) also both in the late (晚) season of autumn and in the season of winter? My husband! You must prepare the Bipa plant, the loquat (枇), to grow (杷). Because the Bipa plant, the loquat, can endure the coldness well.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765-768 梧(Oh) 桐(Dong) 早(Zo) 凋(Zo).

My husband! Do you want to look at the plants grown only in the spring season and in the summer season? This kind of plant will wither away (凋) early (早) in the autumn. My husband! Please, make the warm-season type plant to grow (桐) such as Ohdong plant (梧), royal foxglove tree (*Paulownia coreana*).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on 29 June 2015 in Korean language.

228 확실히 제일 퀴리 부인같은 이는 우리 현희 레지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네요!).....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5년 5월 28일. 로사가 2012년 10월에 보내준 편지, 로사 편지에 대한 답장과 천자문에서 나온 한시(漢詩) 해석입니다. 제목·마리 퀴리 같은 아이는? 편지 답장 RE: 마리 퀴리 같은 아이는? 보낸날짜 2012년 10월 11일 (木) 06:14 (한국시간). 보낸사람: 로사 받는사람: 상덕 아오스딩. 아빠 소화에게 전해 주세요. "소돌아 밤새면 진짜 시험 망해 나고 1 첫시험 첫날 과학시험인데 밤새서 갔다가 74점 맞았어. ㅋㅋ 그 때 넘 우울해서 진짜 그 다음 시험들 줄줄줄 망했는데, 알고보니 과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74점으로 전교 5등을 했었지 뭐야 ㅋㅋㅋ 내용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밤을 새면 그 다음이 힘들어져요!!! 그 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략니다~~~~ 소화야 시험 잘봐!!!!"

보낸사람: 상덕 아오스딩 받는사람: 현희씨와 우리 다섯 아이들(지은 아가다, 근주 대건안드레아, 지아 안나, 로사, 소화 데레사)에게 날짜: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05시 40분 30초 +0900. 제목: 마리 퀴리 같은 아이는?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집에서 마리 (훗날 퀴리 부인) 같은 아이는? 지아 안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다섯시 반, 오늘 시험 앞둔 소화 데레사가 밤샘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오늘의 마리 퀴리는 소화입니다. 지은아가다와 근주 대건 안드레아는 제가 모르는 어느 천재들의 모습이지요! 확실히 제일 퀴리 부인같은 이는 우리 현희 레지나입니다. 아빠가, 2012.10.11. 새벽에. 올해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한 우리 현희씨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같은 대학 애완동물자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 상덕 아오스딩도 조금 더 열심히 됐어요. 대장암 수술 받고 만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실비실한 제가 현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성적 내는 것이 학교에서 맨 꼴찌인데 이번 학기에는 남보다 느리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토요일(2015년 6월 27일) 저녁에 우리 현희랑 함께 성적 입력을 했어요. 현희는 불러주고 저는 입력하고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다음은 천자문 한시(漢詩) 한 편입니다. 천자문(千字文) 753-

768 번째 16 글자로 된 시(詩)입니다. 해석은 저 김 상덕 아오스딩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시의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네요!) 입니다. 渠荷的歷(거하적력) 이쁘고 보기 좋은 것이(的) 더 뚜렷하게 보이려면(歷) 연못에는(渠) 연꽃만 있어야 되요(荷). 연꽃은 보통 물 위에 떠서 꽃을 피웁니다. 다른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이 연꽃을 가리게 되니 연꽃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집은 주택입니다. 오늘 저녁 저녁밥을 먹고 나서 저는 아내 현희랑 함께 마당에 있는 식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집인데 현희가 워낙 꽃을 좋아해서 우리집에는 꽃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에서는 우리집을 ‘꽃집’이라고 부를 정도로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보 꽃이 100 가지 넘어?”라고요. 현희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땅은 좁고 꽃은 많으니 식물이 마치 겹겹히 쌓여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현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네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천자문 한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연꽃이 물 위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 현희씨 제가 쓴 이 글을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꽃은 물에 살 수 밖에 없지요. 다른 풀을 물에다 심으면 죽어버리지요. 다른 풀과 달리 연꽃이 혼자 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라고요. 역시 꽃을 좋아하는 현희는 다르네요! 현희 말을 듣고 있노라니 천자문을 쓰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보게, 자네는 왜 그리 둔한가? 자네 아내 말이 맞지. 물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연꽃이 거기 살면서 이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이것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요. 園莽抽條(원망추조) 아니요. 꽃이(莽) 마당에 가득차게 되려면(園) 줄기가(條) 뻗쳐 나가면 됩니다(抽). 네, 줄기가 뻗어나가면 겹겹히 살 수 있게 되니 같은 땅에 여러 식물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 만이 아니지요. 살아가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물은 봄과 여름에, 또 다른 식물은 가을과 겨울에 자라니 한 해 동안에 여러 식물을 차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枇杷晚翠(비파만취) 늦은 계절인 가을-겨울에도 여전히(晚) 푸르른 색으로 자라는 것이 있으려면(翠), 추위를 잘 견뎌내는 비파나무가(枇) 자라주어야 합니다(杷). 梧桐早凋(오동조조) 봄 여름에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얼른(早) 말라버리는 것이 있으려면(凋),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오동나무가(梧)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桐). 하느님 우리 현희가 오늘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만남적인(우리집에서 지아가 처음 쓰기 시작한 말로 ‘만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이라고요. 내일부터 현희랑 제가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聖地: ‘거룩한 땅’이라는 뜻으로, 천주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살았던 곳 또는 돌아가신 곳) 몇 곳을 다녀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다니기로 결정한 것부터가요! 아이들 키우는 일이 최우선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다니요! 우리집 마당에서 꽃을 함께 보면서 우리 현희씨 저에게, “꽃을 함께 보고 있으니 좋네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는 꽃에 대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라고 물으니, 현희가 “그렇지요!”라고 대답합니다. 한 때는 “나는 월급 타오는 일 말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저녁에 현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주님 저도 감사드려요, “건강하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이라는 말로요.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드립니다, 2015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저녁에 씁니다.

The theme of the present work is as follows. 757-760 園(Won) 莽(Mang) 抽(Tchu) 條(Zo). My husband! Do you want that a lot of flowering plants (莽) live together in the garden (園)? The solution is simple. The flowering plant must expand (抽) its stem (條) into the air. With this style, many plants can live together. My husband! The growing season is same as well as the growing space. Certain plant can live in the spring and in the summer, while other plant can grow well in the fall and in the winter. You can see in the same place many different plants alternatively on the different season. This is the grammar style of Korean language. Our Lord! You have help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to translate this poem! Thank you so much, amen!

ACKNOWLEDGEMENTS

The author thanks Mr Ilsoo Joseph Kim and Mrs Bohwa Maria Kim, Mrs Hilye Sarah Kim and Mr Yeonghag Park, Father Yang_eob Thomas Tchoi, Father Jean Blanc and Father Hifumi Iwazaki and Father Xavier Ha and Father Thomas Gil and Father Ikseon Gregorio Choi, Mrs Tamako Hayashi and Mr Yoshihiro Hayashi, Professor Francine Tenaillon and Professor Nicolas Tenaillon, Professor Byeong_Hwan Kim in Chosun University High School, Father Gangseob Leo Eom and the members of Daejeon Ludovich of Ordo Franciscanus Saecularis(OFS), Father Hanyoung Marc Lee and Father Soon-uk Paul Oh and the member of Daejeon Nae-dong Catholic Church, Professor Sook Ja Nam and Mrs Sookja Martha Min, Mrs Toshie Nakano, Professor Tae Song Koh and Professor Shigekata Yoshida and Professor Mitsuaki Ohshima and Doctor Favier and Madame Fasan, Professor Byoung Hoon Park and the student of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in Joongbu University, all the members of Jungni Middle School, Okja and Hwansik and Jieun Agatha and Kunjoo DaegonAndrea and Jiah-Sangmin couple and Rosa-Alain couple and Sohwa Therese. The author thanks his wife Hyeonhi Regina Park. The author thanks the Lord Jesus Christ so much!

REFERENCES

- Dallet, C. H.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His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Victor Palme. Paris. France*, 11-99.
- Han, S. B. (1583). Hanseogbong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written by Hanseogbong). (edited by Yeong Bae Zeong in 1984 on Songwon Publishing Company in Seoul. pp.1-136.)
- Park, H. R., Kim, R., Hamon, A., Kim, S. T., & Kim, S. A. (2021). Augustin often reminds Mrs Hilye Sarah Kim his mother in-law (The Second Translation of Tcheonzamun 449th-46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3(5), 340-341.
- Park, H. R., Kim, R., Hamon, A., Kim, S. T., & Kim, S. A. (2021). My daughter Jieun Agatha, she is now in her thirties, asked me "Am I still a baby?"(Tcheonzamun 481st-496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3(5), 369-370.